"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느 집엔 이거 없지?"
<동백꽃> 점순이의 시점에서 소설 써보기

들어가기 앞서

소설을 쓰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캐릭터는 나의 일부이자, 분신이다. 캐릭터의 성격과 행동은 나의 성격과 행동 중 일부분을 따왔기 때문이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쓴 소설도 학습이 가능한가?
이미 저번에 나는 내가 쓴 에세이를 학습 시킨 적이 있으니까.

준비물

- 내가 쓴 단편 소설(시중에 나와 있지 않음)
- 줄거리
  20년 코로나에 걸려 격리시설에 가게 된 용호.
  하필 격리시설에서 퇴실하는 기간이 공무원 재직 기간에 겹침.
  격리시설은 2인 1실이라 더벅머리와 함께 지내게 됨.
  그때 더벅머리가 용호에게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목표

- 내가 쓴 소설은 "용호"라는 인물의 시점으로 전개
- 이때 "더벅머리"인물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가 가능한가

  주의사항
  - 더벅머리라는 캐릭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 내가 설정한 핍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핍진성 = 내가 만든 소설 속의 규칙)
  - 내 문체를 유지하면서 소설이 작성이 되는가?

소설을 학습 시키기 위한 단계 별 접근

- 소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제시(인물, 갈등, 배경등)
- 이 요소를 바탕으로 내 소설 특징 분석
- 이를 바탕으로 "더벅머리"인물을 다양한 전문가(소설가, 심리학자, 사회학자) 관점으로 분석함
- 분석한 내용과 내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더벅머리"시점에서 글을 써 달라고 부탁함.

최 #목표 이 소설을 이 작가가 쓴 것처럼 다시 창작하려고해. 더벅머리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해줘. #절차 그렇게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소환해. 아래 [특징]부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저 소설을 흉내내기 위한 특징을 분석해. 알겠으면 예라고 대답해. #특징

1. 문체: 인물의 내적 독백이 두드러지며 간결하고 뼈 있는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비유와 상징의 사용이 빈번합니다.
2. 캐릭터: 코로나 확진으로 위기에 처한 용호의 고뇌가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가족들 간의 역학 관계도 흥미롭게 포착됩니다.
3. 캐릭터의 욕망: 용호는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을 맛봅니다.
4. 갈등: 개인과 가족, 개인과 사회 간 갈등이 예리하게 포착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됩니다.
5. 결말: 가족 내 감염 사태로 비롯된 비극적 결말입니다. 재난 앞에 속수무책인 개인의 무력함이 절감됩니다.
6. 시의성: 팬데믹 상황 속 확진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과 혐오, 차별의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7. 주제의식: 개인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낙인과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구조적 모순에 대한 통찰이 엿보입니다.
8. 서사구조: 용호의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이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9. 배경 묘사: 도심 한복판 꽃길의 풍경이 인물의 고립된 처지와 대비를 이룹니다. 격리 시설 내부의 삭막한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10. 독자와의 소통: 감염병 확산 시기 누구나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결과

<더벅머리의 시점에서 본 '탓의 굴레'> (최종본)

204호. 격리 시설의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다.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던 날, 세상이 뒤집어지던 순간. 꿈에 그리던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맞닥뜨린 악몽 같은 현실이었다.

창밖으로는 어둠만이 깔려있었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듬성듬성 박힌 비석들. 시험은 물 건너갔는데, 하필 무덤 옆에서 공부를 해야 하다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복받쳐 올랐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마스크를 쓴 청년이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앉았다. 공부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호기심에 책을 흘깃 보니 공무원 시험 교재였다.

'저 친구도 나처럼 시험을 앞두고 확진 판정을 받은 걸까.'

며칠이 흘렀다. 잠과 공부, 식사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일과가 반복됐다. 청년은 말수가 적었다. 종일 책만 읽어댔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코로나 확진 수험생에 대한 안타까운 반응들이 눈에 들어왔다.

'불쌍하다, 안됐다... 그래, 나 역시 마찬가지야.'

캐릭터들의 상황에 맞춰 글을 써주었다.
-> 더벅머리와 주인공이 격리시설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
둘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데 이를 잘 반영해서 클로드 글을 써주었다.

'불쌍하다, 안됐다... 그래, 나 역시 마찬가지야.'

어느 날,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다. 체온계가 요동쳤다. 38도를 훌쩍 넘겼다.

"자고 나면 괜찮아져요. 자고 나면..."
청년이 건네는 해열제를 받아 물과 함께 삼켰다. 연신 중얼거리는 말에 위로를 얻고 싶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열에 시달리며 신음했다.

새벽녘, 쿵쾅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앞에 보이는 건 짐을 싸는 청년의 모습.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방진복. 직감적으로 뛰쳐나가 그를 따라잡았다.

"잠깐만요! 어디 가는 거죠?"

대답 대신 내 팔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청년.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 설마 저 친구만 퇴실하는 건가.
복도 저편에서 격리 시설 관계자들이 달려왔다. 소란을 피우자 우리는 단번에 제지당했다.

"당장 들어가세요!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빛을 잃었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을 겨우 추스르고 204호로 돌아왔다. 텅 빈 방. 창밖으로 보이는 건 여전히 묘비들 뿐. 시험은 물거품이 되었고, 난 여전히 감염자의 굴레에 묶여있었다.

중간에 더벅머리가 아픈 장면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글을 써줌

하지만 할루시도 많았음
-> 없었던 내용을 알아서 만들었기 때문.

이에 의문을 제기. 그렇다면 문학의 대가들의 작품들로 테스트를 하면 다르지 않을까.

이번 테스트는 김유정의 <동백꽃>
목표는 점순이 시점으로 바라본 <동백꽃>

작성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다.

최 그러면 점순이 시점에서 소설을 다시 써보자. 각 장면별 점순이의 시점에서 전개하려고 해.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소환해. 그리고 그 전문가라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절차를 생각해. 그 뒤 이 절차들을 잘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내. 그 뒤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고의 절차를 제안해. 그리고 이를 통해 소설을 작성해봐. let's rhink step by step.

절차를 뽑아주었다.

1단계: 소설 창작 전문가 소환
소설 창작 전문가라면 점순이의 시점에서 소설을 다시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할 것입니다.

1. 기존 소설에서 점순이와 관련된 장면을 모두 추출하기
2. 각 장면에서 점순이의 행동, 대사, 심리를 자세히 분석하기
3.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점순이의 성격, 가치관, 욕구 등을 구체화하기
4. 점순이의 시점에서 사건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5. 점순이의 내적 독백, 감정 묘사 등을 통해 캐릭터를 입체화하기
6. 전체 스토리의 흐름과 주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하기

2단계: 심리학 전문가 소환
점순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의 동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지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리학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보겠습니다.

- 사춘기 소녀의 심리와 행동 특성 이해하기
- 애정결핍, 열등감 등이 점순이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추론해보기
- 소년을 밀어내면서도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점순이의 양가감정을 표현하기
- 무의식적인 욕구와 의식적인 행동 간의 괴리, 갈등 심리 등을 담아내기

3단계: 최종 절차 정리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점순이 시점의 소설을 쓰기 위한 최종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점순이의 시점으로 소설을 재구성하기 위해 원작에서 필요한 장면과 내용 추출하기
2. 각 장면별로 점순이의 외적 행동과 내적 심리를 자세히 분석하고 해석하기
3. 점순이의 성격과 동기, 욕구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체화하기
4. 사건에 대한 점순이의 생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 재구성하기
5. 심리 묘사, 독백 등을 추가해 점순이의 내면을 깊이있게 표현하기
6. 소년에 대한 점순이의 복잡한 감정선을 디테일하게 그려내기
7. 전체 스토리의 개연성과 주제 의식이 유지되도록 내용을 조정하고 윤색하기

만족스러운 절차들이 나왔다.
절차대로 진행을 했고, 작성한 소설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다시 써달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순이 시점에서 다시 쓴 <동백꽃>
[밉상인 소년을 보며]

(2) 가 에서 점순이가 한 행동을 고려하여 점순이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의도를 적어 보자.



아이고, 저기 있네. 가서 말이라도 걸어볼까...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소년을 힐끔힐끔 바라보다가, 볼이 살짝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슬금슬금 다가가 물었다. "얘! 너 혼자서만 일 허니?" "당연히 혼자 하지, 떼루 할 일이가?" 느닷없이 쌀쌀맞은 그 말에 어깨를 움츠리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다.

'아이고 참, 무신경한 녀석. 그래도 난 너를 좋아허는디... 저런 속마음도 모르고.'

아쉬움을 꾹 눌러 참고 유쾌한 목소리로 농을 던졌다. "너 일허기 좋으니?" 장난스러운 실랑이에도 그는 아랑곳 않고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섭섭한 마음에 조금 전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삶은 감자를 꺼내서 내밀었다. "느 집엔 이런 거 없제?"

따끈한 감자를 쥐여주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건만, 딱 잘라 돌아온 건 냉정한 거절뿐이었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그 말에 순간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모르게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다 보니, 금세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점순이 독백>
아이고, 쟤는 왜 저리도 밉상일꼬. 조금만 다가가 말 걸라치면 냉큼 피하고, 내가 감자를 줘도 받질 않네. 어찌나 고집불통에 날 무시하는지 몰라.

근디도 자꾸만 눈에 밟히고, 신경 쓰이고... 정말로 이상허다. 밉다 밉다 속으로 퍼붓다가도, 걔 일허는 뒷모습을 힐끔힐끔 보고 있으면 설레는 거 있지, 왠지.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정떨어지게 감자까지 구워갔는디, 한마디로 너나 처먹으라니. 어른들 눈치도 보이고 자존심도 상하고... 홧김에 고개를 홱 돌리니 눈물이 핑 도네. 아이고 참, 내가 왜 이러는 지 모르겄다...

닭싸움 장면

사진





북받쳐 오르는 서러운 눈물을 꾹 참으며 논둑길로 뛰쳐나왔다. 그러다 마침 그 아이 수탉이 눈에 띄었다. 괜히 속이 상해서 왜소한 몸집의 그 닭을 덜컥 움켜잡았다. 아프다고 펄떡거리는 걸 무시하고 볼기짝을 마구 때렸다. 그때 울타리 건너에서 그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년아! 남의 닭 맥을 못 추게 할라 카는 거가?"

'흥, 닭 좀 혼냈다고 그렇게 노발대발하나? 나도 너한테 상처받은 거 알아?'

화끈거리는 얼굴로 툴툴대며 마음속 말을 삼키고 닭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성을 내며 우리 집 수탉을 때려 죽이고 말았다. 멍하니 서서 목 놓아 우는 날 보며 그 아이도 울음을 터트렸다. 서로를 끌어안고 동백꽃 위로 쓰러졌다. 진한 꽃내음이 우리 둘을 휘감으며 이상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사진

Jeomsoon2



9명이 좋아합니다.

Jeomsoon2 카톡 왔다

#밀당 #어려워 #선톡 #그린라이트인가요

<점순이 독백>
흥, 내가 널 싫다 캤더니 쫄았나 본디? 내 마음도 모르면서, 함부로 날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집 닭으로 너네 집 닭 혼쭐을 내주께. 우리 집 닭이 덩치도 크고, 싸움닭이라 엄청 세거든.

근디 이 바보 닭, 맞기만 허고 있으니 속상해 죽겄네... 두고 봐라, 다음에는 내가 직접 가서 가만 안 둘 란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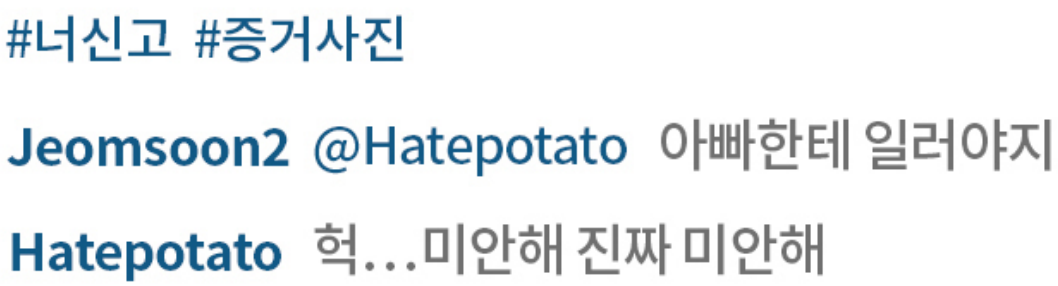


Jeomsoon2



10명이 좋아합니다.

Jeomsoon2 대박사건 고자 새끼가 우리 닭 죽임



동백꽃 장면에서

아이고... 많이 아팠겄다. 내가 너무했나 봐라. 어찌다 이렇게 됐는지... 미안허다. 니가 내 맘을 알아줬음 좋겠는디. 결국 내가 서툴렀던 거제. 질투나서 널 괴롭히고, 닭으로 상처 줄라 한 게 바보 같네. 정말로 미안허다.

니 품에 안겨서 동백꽃 내음 맡고 있으니까, 이런 게 사랑인가 싶어져.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가 니한티도 들리제... 이젠 내 맘 잘 표현할게. 알제, 내 맘? 너 좋아한다...

사진



Jeomsoon2



10명이 좋아합니다.

Jeomsoon2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해? @Hatepotato

#럽스타그램 #동백꽃 #사실_이거_생강꽃이야

#해피엔딩 #오늘부터_1일

https://claude.ai/chat/d64830d8-5efd-4555-a932-f8ea02394c70

느낀점

내가 소설을 못 쓴거였음...
거장만큼 소설을 잘 써보자.